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의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 탐색

유 정 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요 약 》

우리나라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스포츠 중심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왔고, 지금까지 체육과 교육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다. 최근 스포츠가 본래의 의미와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교육적 속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의 주관적 체험, 단련과 훈육, 몸의 내적 변화와 같은 교육적 가치는 지나친 객관화 추구, 유희성과 오락성 추구, 그리고 몸의 외적 변화 추구를 직면하게 되었다. 스포츠의 본질이 퇴색된 변화과정은 체육교과의 정체성이 수행교과가 아닌 기능교과로 인식되고,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라는 비교육적인 역할이 부과되었으며, 건강과 체력 증진이라는 체육과의 실용적 목적만을 중요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다. 따라서 본 글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대안적으로 도입된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형성에 필요한 라이프 기술(life skill) 개발에 있다. 또한 신체활동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5가지 교육 방향, 즉 활동성의 추구, 정합성의 추구, 일상성의 추구, 통합성의 추구, 그리고 포괄성의 추구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스포츠가 거쳐 온 변화과정과 교육적 한계를 재생산하지 않기 위하여, 체육과 내용의 초점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하였다.

주제어 : 스포츠, 신체활동, 체육과 교육과정

I. 서론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시개정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체육'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

과정 변화의 폭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 체육과 선택과목도 제7차와 비교해 볼 때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된 과목들이 고시되었다. 이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의 가장 근원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체육과 내용에 대한 철학적 변화이다.

과거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교육과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체육교과의 핵심은 ‘스포츠’(또는 운동)였다. 이 ‘스포츠’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이자 도구로써 50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었다(강신복, 2004; 정영린, 1996; 최의창, 2005a). 스포츠의 역사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 지속되어 왔다. 이 스포츠가 학교교육 체제 안에서 체육교과의 내용으로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과 특징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 변화의 모습은 체육교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송형석, 2004; 안양옥, 2004; 유정애, 2005b; 장용규·김홍식, 1998; 정영린, 1996). 스포츠의 본질적인 의미와 특성과는 달리 교육 수요자들과 체육교육 관계자들의 인식에는 ‘스포츠(sports)=기능(skills)’으로 연결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이 인식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체육교육 활동을 변질시키고, 학교교육에서 체육교과가 하나의 교과로서의 담당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교과역할과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서 체육교과가 기능교과, 비주지교과 등으로 인식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강조해 왔던 체육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이 ‘스포츠 기능 습득 중심의 체육수업’으로 흘러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유정애, 2005a, 2005b; 장용규·김홍식, 1998; 최의창, 2005a). Siedentop(1994)도 전통적인 체육수업에서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인 ‘스포츠’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체육수업에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기능과 유희적인 게임(recreational games)에 치중하여 스포츠의 탈맥락적(decontextualized) 내용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현상은 많은 학생들과 성인들이 학창 시절에 실제로 체육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통한 체육교육’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Kretchmar, 2000).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의 중심에 있었던 ‘스포츠’의 변질 또는 왜곡이 체육교육의 목적과 위상도 함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체육교육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체육교육의 성격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내용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노력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스포츠’가 아닌, ‘신체활동’을 대안적으로 도입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의 목적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의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Ⅱ.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의 ‘스포츠’의 변화과정과 한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신체육(new physical education)’이 유입되면서 ‘스포츠’는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르기까지, 중요한 체육과 교육내용으로써 스포츠의 다양화와 세분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장용규 · 김홍식, 1998; 정영린, 1996; 정웅근 · 장용규, 1995).

스포츠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던 이유는 체육과 교육내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의 특성이 변화되면서 체육교육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던 스포츠가 최근에 변질되어 온 변화과정을 제시한 후,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의 교육적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스포츠의 변화과정

스포츠 같은 체육과의 교육내용은 체육교과의 지향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체육교과의 지향은 스포츠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지향은 체육과 교육내용인 스포츠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반대로 스포츠를 통하여 체육과의 교육적 지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김홍식, 2002, 2005).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스포츠가 체육과의 교육적 지향을 어떻게 드러내 왔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포츠의 ‘주관적 체험’에서 ‘객관적 계량화’로의 추구

20세기 말기는 ‘스포츠의 황금시대’라고 일컬어지면서 동시에 스포츠에 대한 개혁론을 맞이하는 이중성의 시대로 특징 지워진다. 스포츠 개혁론자들은 현대의 스포츠가 지향하는 ‘승리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계량화(quantification)’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대의 스포츠가 과도하게 승리나 계량화에 집중됨으로써 스포츠 참가를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스포츠 체험(lived experience)’ 가치는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신현균, 1995). 정웅근 · 송형석(1996)도 현대 산업 사회에서 스포츠는 전통적인 형식과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를 체육과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스포츠의 교육적 대상은 스포츠 수행과정의 의미(meaning)보다는 스포츠 수행결과의 기록(record)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실제로 스포츠의 근대화는 스포츠의 계량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근대 스포츠는 수치의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신문들은 매일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리그로부터 나온 수치화된 결과들을 보고한다. 골프와 테니스 팬들은 시즌 동안 매일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종목의 점수에 온갖 신경을 기울인다. 육상 경기, 체조, 역도 등의 열광적인 추종자들도 매일 수많은 수치들로 채워진 자료들을 보기 위하여 스포츠 종목의 전문 잡지 발행일을 학수고대한다. 또 구 동독 정부에서는 매년 최고의 기록을 낸 초등학교 어린이의 기록을 수록한 책자 『동독의 최연소 최고기록』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은 수치들로 가득 찬 기록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이론가는 스포츠를 점수 또는 C-G-S-S(Cm-Gram-Second-System)로 측정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Guttman, 1979, 장용규, 1996에서 재인용).

스포츠의 계량화로 인해 스포츠 체험의 의미는 도외시되고 있다. 스포츠에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은 스포츠를 통한 삶의 경험을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록 중심의 양적 차원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형성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단련과 훈육’에서 ‘유희와 오락’을 추구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스포츠 변화과정은 스포츠 참가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스포츠의 유희성과 오락성 추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는 장기간의 훈련, 인내, 협동 등의 금욕주의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스포츠를 습득하여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에 입문하여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교육적 체험을 위해서는 수련(discipline)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응근·장용규(1995)는 ‘스포츠 체험(lived experience in sports)’이 스포츠 참가자에게 자신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움직임의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폭넓고 깊이 있는 ‘앎(knowing in sports)’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스포츠 체험은 신체 움직임의 체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현실 인식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자아발견을 가능케 하고, 스포츠 상황에 따라 타인이 갖는 의미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결국 자아발견과 타인 이해 등을 통해 전인교육이라는 ‘체육의 교육적 의미’ 제고에 도움을 준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거치게 되는 ‘수련’은 단순히 인체 생리적 작용과 기능 조절을 연상하는 신체단련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인내와 협동같이 자연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내면적으로 체득해야 하는 정신단련까지 포함한다. 이 신체단련과 정신단련이 모두 구현될 때 스포츠를 정확히 익히고 올바

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에 있는 이 두 가지 단련이 거듭될수록 실패는 성취로, 고통은 기쁨으로 승화된다(안양옥, 2004, 2006). 즉 스포츠에 있는 수련의 과정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교육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가치관에서 발견되는 스포츠관은 자유, 즐거움, 재미, 가벼움 같은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송형석·정영린, 1996; 장용규·김홍식, 1998). 이와 같은 스포츠의 유희성과 오락성은 현대사회에서 도입된 생활체육의 영향으로 절정기를 맞이한다. 학교체육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에 있는 단련과 훈육을 통한 진지함과는 달리, 생활체육은 스포츠의 유희성과 오락성을 크게 강조한다. 즉 생활체육의 목적은 주로 스포츠 참여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장보다는 일상의 즐거움 충족과 스트레스 해소를 지향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된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와 외적 성장은 학교체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안양옥, 2005, 2006).

학교체육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교육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스포츠의 단련과 훈육 측면보다는, 개인의 사적 체험이 중요시되는 유희와 오락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2006)은 최근 학교 체육에서 스포츠에 있는 '교육적 단련'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체육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있는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한다.

다. 몸의 '내적 변화'에서 '외적 변화' 추구

현대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건강 지상주의는 이데올로기화되면서 오히려 건강과 피트니스 산업이나 제약회사,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의학관련 전문가, 헬스 전문가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다(Tinning, 1990).

이 건강주의는 개인주의나 메조모피즘 등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메조모피즘은 지방질이 적은 근육질의 체형을 선호하는 가치의 유형이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체형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다. 체형주의의 가장 단순한 예는 외모 또는 몸매(예: 몸짱, S라인 등)를 중시하는 언론매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잡지나 TV 광고는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전해준다. 이상적인 신체상 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형이다. 체형 지향의 스포츠 활동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근육형 또는 S라인 신체를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체형 지향 이데올로기에 지속적으로 다년간 노출될 경우, 긍정적이지 못한 자아관을 형성할 수 있다(장용규, 1996).

최희창(2005b)은 스포츠가 단순히 몸의 외적 변화, 즉 군살을 빼고 근육형 또는 S라인 같은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왜곡된 가치는 스포츠를 통한 몸의 내적 변화, 즉 스포츠 활동에 의미있고 멋있게 참여하는 데 무관심하게 만든다. 즉 스포츠의 멋진 수행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풀어져 나오

는 것임을 망각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 참여하여 승리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있음을 몸으로 깨닫고, 체력이나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을 팀원으로 존중하는 덕목을 실행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어우러짐은 자신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공유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과 일반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 속에 담겨진 올바른 바람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몸짱 같은 외형적 변화에 모든 관심을 지나치게 기울이게 된다면, 체육교육은 점점 저급화되어 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2. ‘스포츠’의 교육적 한계

이 부분에서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던 스포츠의 변화과정이 양산한 스포츠의 교육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능교과’라는 체육교과에 대한 왜곡된 편견 제공

‘스포츠 기능(sport skill)’은 체조, 육상, 축구, 무용 등의 체육 교육내용을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숙달된 기능 발휘가 가능할 때 멋있는 시합이 가능하다. 즉 기능이 뛰어날 때 상대방을 이기는 승리감도 맛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장용규 · 김홍식, 1998).

그러나 우리나라 체육교육에서는 스포츠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강신복, 2004; 유정애, 2005a, 2005b, 장용규 · 김홍식, 1998; 최의창, 2005a). 이 비판들은 체육교육의 중심에 스포츠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에 대한 교육이 거의 단편적인 기능교육으로 이루어져 온 현실에 대한 것이었다. 즉 체육교육에서 다양한 스포츠 기능 습득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됨으로써 체육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괴리되고 이론과 실기가 분화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이러한 현상은 체육교육이 마치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기능교과로 잘못 인식되는 가치의 왜곡 현상이 만연하여 현재 체육교육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능 중심의 체육교육관은 우리나라 체육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육교과 내용에 관한 교사들의 지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체육 교과내용인 운동 종목에 대하여 단일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각 운동은 기능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연시하며, 운동을 ‘잘 아는 것’은 그 운동이 포함하는 운동 기능들을 숙달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각 운동 종목이 갖는 더 깊은 의미(그 운동의 내적 차원)에 대해서

는 체육교사의 관심이나 인식의 깊이가 얕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양옥, 1995).

특히 양적 성취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기능 습득이 체육교육의 주요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가 체육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서의 활용 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육이 스포츠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스포츠 기능 습득에 초점을 둔 체육교육은 스포츠의 양적 팽창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체육의 교육적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정영린, 1996).

스포츠 안에는 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수행할 때도 기능(skill) 하나만 가지고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성취할 수 없다(최의창, 2005a). 스포츠 안에는 기능 이외에도 전술, 전략, 전통, 의례, 에티켓, 역사, 규칙, 심판법, 경기 절차, 관전법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삶의 대상인 스포츠의 일부분(스포츠 기능)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마치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숲 안에 있는 나무 몇 그루만 본 것과 다를 없다. 정리하면,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은 스포츠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은 체육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와는 다른 기능중심교과(비주지교과)로 보고 있다. 이 인식은 체육교과의 교육적 가치와 타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관점이다. 이 위험한 관점을 자리잡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체육교육자와 일반 교육자 모두 스포츠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체육교육자들은 스포츠의 수행(performance)이 아닌 스포츠의 기능만을 중시하며 체육교육 활동을 해왔고, 일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스포츠가 수행되는 모습을 '기능'이라는 잣대로만 이해하려는 편견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나.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라는 체육교과의 비교육적 역할 부과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통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스포츠 활동은 학생의 신체발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스포츠의 실체를 편협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는 입장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후자의 경우는 체육교과의 역할을 주지교과에서 얻고 있는 학업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체육을 공부하는 교과, 지식과 무관한 교과, 교육이 없는 교과로 규정하는 입장을 전제한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다른 교과수업과 비교하여 볼 때 체육수업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다린다. 이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체육수업에 배움이나 공부가 없어서 학생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수업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배움과 공부가 체육수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안양옥, 2004, 2006; 유정애, 2005a).

본질적으로 배움의 즐거움은 체육교과에만 해당되는 조건은 아니며, 모든 교과에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교과 교사들이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학습과정의 요소일 뿐이다. 즐

거음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거나 결과로 인식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의 역할을 논의할 때 ‘자유의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강조한다면, 체육수업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학생들에게 발산적 즐거움과 비생산적인 스트레스 해소만 제공할 뿐이다.

이와 같은 체육교과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바람직한 체육교과의 목적은 단순한 즐거움의 추구로 유도되며, 좋은 체육수업과 좋은 체육교사의 기준에 ‘즐거움’이 최대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잡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체육교과의 역할이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발산’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체육과 내용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가급적 재미있고 손쉬운 활동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건강과 체력 증진’이라는 체육교과 목적의 실용성에 치중

스포츠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될 때 실용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스포츠의 전통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에서 스포츠는 ‘스포츠다움’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송형석(2004)은 이러한 경향을 ‘스포츠의 탈스포츠화’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에 대한 사례를 건강 스포츠로 들면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건강에 득이 될 수 있지만 탈스포츠화된 스포츠, 즉 전통적인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 경시된 채 행해지는 스포츠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면 건강 스포츠에서는 규칙 준수, 경쟁, 승리, 팀워크, 성취감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사회화 형식들이 대부분 간과된다.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에 부가된 건강의 증진이 1차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직 건강만을 위해 스포츠를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면 세울수록 오히려 그러한 집착으로 인하여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전심전력하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몸이 경직되고 긴장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와 육체적 부담은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송형석, 2004).

스포츠의 전통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은 건강하고 탄력있는 몸매(예: 몸짱) 만들기 같은 몸의 외적 변화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결과는 최근 아동 또는 청소년의 체력이 예전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며, 비만한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체육교과가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체육교과의 존재 이유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몸

의 변화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마치 수학교과에서 논리력과 추론 능력 등은 무시하고 단순히 산술 능력만 강조하는 모양새와 동일하다.

체육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의 역할과 사명은 고유한 학문적 지식의 전수와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교과교육이 실용성 교육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본질 교육을 이루어내기 어렵게 된다.

Ⅲ.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의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

지금까지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 활용되어 왔던 스포츠의 변화과정과 현재 변화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스포츠를 대체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신체활동'의 교육적 의미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체육과 내용을 스포츠 종목 중심에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과거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스포츠 종목 중심의 내용을 '신체활동'으로 대체하였다. 즉 2010년(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각 단위학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의 본질과 도구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닌 신체활동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Tinning(1995, Penny, 1998, p. 121 인용)은 스포츠가 단지 체육교육을 받은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한 가지 매체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학교체육에서 스포츠가 체육과 교육과정의 일부일 수 있으나 전부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Ennis(1996)도 스포츠 중심 체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즐겁고 교육적으로 가치로운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소개하는 연구물의 보고가 증가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녀는 연구물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스포츠 중심 체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창의성 개발이나 덕목 형성, 인간 한계의 도전정신 등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적지 않은 체육교육자들이 이러한 측면을 교육의 실체에서 외면하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체육학적 지식을 배우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면서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대

체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한다(Ennis, 1996).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은 스포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신체활동은 스포츠 기술과 체력증진을 위한 구조화된 운동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연유로 주로 운동은 경쟁적인 스포츠를 추구하는 청소년과 성인에 의해서만 행해져 온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운동(exercise)은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움직임의 형태인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으로 대체되고 있다. 신체활동은 가정 또는 직장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가 중, 가족과 함께 또는 구조화된 스포츠 경기나 레크리에이션에서 행해질 수 있는 움직임 형태이다(Ainworth, 2005, p. 20).

이 신체활동 개념은 주로 학교의 수업에서만 관심이 되어 왔던 스포츠 종목 중심의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이외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신체활동(걷기, 등하교 시 자전거 타기, 학교나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기, 공원에서의 킥보드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손세차하기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모든 교과는 교과의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국어 교과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수학 교과에서는 수(數)를 통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과학교과에서는 자연현상을 통해 우주와 세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체육교과도 마찬가지이다. 즉 모든 교과에서는 교과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적 도구를 활용하여 교과의 탐구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안내한다.

모든 교과는 학생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공통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교과마다 학생들을 세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체육교과의 경우는 '신체활동'이라는 교과의 내용 자체이자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유정애, 2005a).

이런 의미에서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의 직접적인 수행에 관여되는 스포츠 기술(sport skill)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수행의 기초가 되는 라이프 기술(life skill)의 발달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체육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도해야 할 기술로 스포츠 기술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스포츠 기술이 학생들의 활동적인 삶에 필요한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신념에 기인한다(Corbin, 2002b). 그러나 스포츠 기술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스포츠 기술 자체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유정애·김원정, 2006).

Corbin(2002a)에 따르면, 활기차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참여 요인(lifetime adherence)은 신체활동에 대한 가치와 신체활동에 대한 사실(facts)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라이프 기술을 갖춘 학생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활

기차게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Corbin(2002b)은 체육교사들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면 자기관리기술(self management skills) 같은 라이프 기술을 신체활동을 통해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라이프 기술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생활습관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신체활동을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는 데 토대가 된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최상의 스포츠 기술을 갖출 수 없지만,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 관리 기술은 적절한 지도로 습득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은 향후 신체활동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은 하나의 사회적 인간활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의 한 부분인 운동기능이 마치 스포츠 활동의 전체인 듯이 강조되고 있는 현 스포츠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간활동'으로써의 신체활동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체스에서 말을 옮기는 것이나 축구공을 던지는 것은 사회적 인간활동이 아니지만, 체스나 축구는 사회적 인간활동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벽돌 쌓기는 사회적 인간활동이 아니지만 건축은 사회적 인간활동이다. 무를 심는 것은 사회적 인간활동이 아니지만, 농경은 사회적 인간 활동이다(장용규 · 김홍식, 1998).

Laker(2003)도 체육교육이 스포츠 기능 습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사회문화적 실체를 가진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는 체육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신체활동을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신체활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익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2. '신체활동'의 교육적 지향성

이 부분에서는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가지고 있는 신체활동의 다섯 가지 교육적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활동성의 추구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의 기술 습득보다는 신체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에 관심을 둔다. 스포츠에는 경쟁적인 신체활동이라는 본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기술 발달의 목적을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관점에서는 스포츠 같이 경쟁이 수

행의 목적이 아니라, 스포츠의 경쟁적 요소를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요인으로 활용한다. 즉 신체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기술성(skillfulness)보다는 활동성(activeness)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정한 스포츠 기술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추구한다.

스포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상위 수준의 스포츠 기술을 익히는 것은 환경적인 제약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스포츠 기술이 특별히 요구되는 않는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Corbin, 2002b). 즉 청소년들로 하여금 평생 체육의 습관을 길러주고 복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의 습관이 학생들에게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체육 문화에 입문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더 나은 사람,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쌓아 놓아야 한다(최의창, 2005a).

신체활동이 지향하는 활동성(activeness)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수준, 체력 수준, 성차, 흥미도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 스포츠 중심의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체육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이 소외되어 왔지만, 신체활동이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 활용되어 ‘신체활동의 활동성’을 강조하는 체육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학습능력에 맞는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정합성의 추구

미국 성인의 신체활동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신체활동의 10위 안에 1위부터 9위까지는 걷기, 정원 관리, 스트레칭, 웨이트트레이닝, 조깅, 에어로빅댄스,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수영으로 나타났고, 10위에 테니스가 포함되었다. 이는 중등학교에서 배우는 체육교육내용과, 실제로 성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신체활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중등학교 체육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단체 스포츠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지 중학교에서는 조깅, 고등학교에서는 웨이트트레이닝, 조깅, 테니스 등이 라이프타임(lifetime) 활동으로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rbin, 2002a).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주로 수행되는 신체활동과 중등학교에서 교육되는 체육과 내용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Ennis(2005)에 따르면 체육과 내용은 효율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내용요소와 지도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 단순지식과 기술을 익혀 시험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내용의 정합성(curriculum

coherence)이 높았을 때 학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신체활동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정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등하교하기 위해 걷어가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야외에 나가 자전거를 타는 것, 공원에 나가 산책하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것 등등이 학교 밖에서만 수행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 또는 체육수업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기 때문이다.

다. 일상성의 추구

스포츠는 특성상, 체육수업에서의 학습내용을 학생의 일상생활로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포츠는 혼자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장소, 기구,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반면 신체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걷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공부나 일을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혹은 아주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체육수업에서 배운 걷기의 좋은 점과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용이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신체활동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일상화를 가능케 한다. Corbin(2002b, p. 135)은 신체활동의 일상화를 위한 학습 강조가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부모의 양치질 교육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현재 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칫솔질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충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칫솔질을 잘하지 않더라도 충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칫솔질을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학부모들이 현재 비활동적인 아이들이 체력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비록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아이들이 신체활동 습관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들이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Corbin(2002b)의 설명과 같이, 체육교과에서 신체활동의 일상화 습관을 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는 체육수업의 학습내용 안에는 직접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지만, 동시에 수업에서 수행한 신체활동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인용문에 제시되었던 양치질처럼 학부모들이 신체활동의 일상화 습관을 인식할 수 있는 체육교과의 노력도 동시에 추구될 필요가 있다.

라. 통합성의 추구

그 동안 우리는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스포츠를 단지 게임활동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 경향성은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포츠 기술과 전략으로 보게 되며, 이를 우선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운동 역학이나 운동 생리학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이거나 아예 교육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축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강 이론 부분도 필수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없게 된다. 하지만 축구를 하나의 사회적 인간활동이나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축구의 게임적 측면은 축구의 한 부분에 그치게 된다. 즉 축구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것이다(최의창, 2005a). 따라서 스포츠 기술과 전략에만 집중하게 되면 스포츠의 전체를 결코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 없다.

체육과에서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가능하면 다양한 스포츠를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경향으로 체육교사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체력을 갖춘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스포츠를 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관례와 통념에 기인한다. 그러나 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잘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단지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스포츠를 잘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이 막연함은 체육교과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체육교사들은 매번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지도해야 한다는 외부의 강한 압박을 느끼며, 시간과 환경제약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를 깊이 있게 다루지도 못하고 기초 기술 몇 가지를 분절적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신체활동은 교육내용의 통합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신체활동의 전체를 조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신체활동의 내용 요소를 독립된 개별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퍼즐 작품의 한 퍼즐 조각으로 인식한다. 퍼즐 작품은 단 한 개의 사소하게 보이는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퍼즐 조각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맞추어져 있더라도 완성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신체활동이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지향하는 측면도 동일하다. 신체활동을 이루고 있는 낱개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제자리를 찾아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점도 신체활동이 지향하는 통합성을 추구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마. 포괄성의 추구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포츠의 긍정적인 교육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포

츠가 현 시점의 우리나라 체육교육에 가져다준 한계의 원인은 근대에 발생한 전통적인 스포츠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온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교과내용을 유입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선행 연구(강신복, 2004; 유정애, 2005b; 정영린, 1996)는 제1차 때 유입된 근대 스포츠 중심의 체육과 내용이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비판하고 있다. 체육교과에 대한 내부자와 외부자의 비판이 증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처럼 더 이상 교육 환경에 의존하는 체육교육을 수행하기보다는, 최근 교육환경을 극복하는 체육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더 이상 최적의 시설과 제도가 요구되는 전통적인 스포츠(classical sports)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환경의 제약을 덜 받는 뉴스포츠(new sports)가 교육내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뉴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체활동(요가, 짐볼 등)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과 내용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교사 수준에서 비공식적으로 실천되어 온 측면임을 주목해야 한다.

스포츠가 교육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만 활용된다면, 스트레칭, 요가, 걷기, 넷볼, 티볼, 풋살 등은 공식적인 체육 교육내용으로 유입될 수 없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공식적인 체육수업내용이 될 수 없으며, 공식적인 내용인 축구, 농구 등을 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그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를 스포츠가 아닌 신체활동으로 설정한 것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체육교육의 환경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IV. 요약과 제언

1. 요약

우리나라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스포츠 중심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왔다. 즉 스포츠는 체육과 교육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어 왔으며, 스포츠 자체가 체육교육을 대변할 만큼 그 위치와 위상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가 본래의 의미와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교육적 속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스포츠의 주관적 체험, 단련과 훈육, 몸의 내적 변화 같은 교육적 가치는 지나친 객관화 추구, 유희성과 오락성 추구, 그리고 몸의 외적 변화 추구를 직면하게 되면서, 체육교과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비판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스포츠의 본질이 퇴색된 변화과정은 체육교과의 정체성이 수행교과가 아닌 기능교과로 인식되고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라는 비본질적인 역할을 부과되었으며 건강, 체력 증진이라는 체육과의 실용적 목적만을 중요시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도입된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의 ‘신체활동’에 주목하여,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와 지향성을 논의하였다.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에 필요한 라이프 기술(life skill) 개발을 강조한다.

또한 신체활동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다섯 가지 교육 방향이 논의되었다. 첫째, 신체활동은 스포츠와 달리 기술성(skillfulness)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신체활동의 수행, 즉 활동성(activeness)을 추구한다. 둘째, 신체활동은 교육과정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즉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신체활동이 교육내용으로 선정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학습활동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낳는다. 셋째, 신체활동은 일상성을 추구한다. 스포츠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시설, 장소, 용품, 시간 등)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활동은 삶의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신체활동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한계와는 달리, 신체활동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통합성을 추구한다. 스포츠는 경기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스포츠의 본질과는 달리 스포츠 기술, 전략에 초점을 두게 된다. 신체활동은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 수단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신체활동 그 자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신체활동은 포괄성을 추구한다. 근대에 생성된 전통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과정 내용 속에서는 다른 유형의 스포츠나 신체활동은 공식적인 교육내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와 스포츠가 아닌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2. 제언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중심 체육과 내용이 사회적 인간 활동으로써 스포츠의 본질과 도덕적 의미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은 체육과 교육내용의 초점이 잘못 이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장용규 · 김홍식, 1998).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가 다른 ‘무엇’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스포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현될 때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이다(Arnold, 1997). 따라서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도입된 ‘신체활동’도 스포츠 같은 교육적 한계의 양산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체육과 교육내용의 대상과 초점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신체활동의 가치 교육이 종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틀은 신체활동의 가치(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

첫 가지 신체활동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측면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신체활동의 가치를 조망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신체활동의 가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활동의 가치가 상호 독립된 내용요소로 취급되어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활동성, 정합성, 일상성, 통합성, 포괄성)가 구현되기 어렵다.

둘째, 체육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체육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반성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 틀 속에서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지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스포츠에 대한 운동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새롭게 도입된 '신체활동'에서 추구되는 바람직한 체육교사는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전수하고자 하는 교육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체육교육관을 갖춘 체육교사의 역할은 스포츠 기능 지도보다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체육수업의 존재 목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체육교사는 주어진 체육수업시간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스포츠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스포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수업 시수와 교육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체육수업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체육수업의 존재 목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체육수업의 존재 목적은 신체활동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신체활동을 체험하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교육하는데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체육과 교육내용과 활동을 선정할 때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통한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스포츠를 필수 내용으로 지정하여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교사수준에서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활동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체육과 내용의 본질과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의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즉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수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크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별 신체활동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교사들의 공동 연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복(2004). 중등학교 체육 교과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학교교육 50년 반성과 전망.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542-573.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김홍식(2002). 스포츠철학론. 서울: 무지개사.
- 김홍식(2005). 스포츠 성격 해명의 두 가지 방식과 체육교과의 지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161-173.
- 송형석(2004).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포츠와 건강. 한국체육학회지, 43(1), 59-67.
- 송형석, 정영린(1996). 현대 사회의 스포츠 전개 양상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35(4), 59-71.
- 신현균(1995). 포스트모더니즘과 스포츠: 현대 스포츠의 특성을 초월하여. 체육학회보, 63호, 4-8. 한국체육학회.
- 안양옥(1995). 체육 교과내용 지식의 수준과 수업 지식의 관련성.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양옥(2004). 학교 체육 위기의 역사적 조망과 극복가능성 탐색. 2004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안양옥(2005). 학교 체육의 정체성 확립과 학교 클럽 스포츠의 활성화. 제4회 학교체육진흥 논문발표회 자료집. 3-21.
- 안양옥(2006). 초등체육교과교육론. 서울: 무지개사.
- 유정애(2005a). 체육수업 비평. 서울: 무지개사.
- 유정애(2005b).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반성과 발전 방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3), 1-31.
- 유정애, 김원정(2006). 체육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설 논리와 내용 구성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2), 1-24.
- 장용규(1996). 현대사회의 추상성과 체육교육의 문제. 한국체육학회지, 35(3), 157-168.
- 장용규, 김홍식(1998). 기능중심 스포츠교육의 한계와 대안 모색. 체육연구소논집, 19(1), 75-90.
- 정영린(1996). '신체육' 운동과 체육교육에서의 스포츠 발전 과정. 체육사학회지, 1(1), 95-107.
- 정웅근, 장용규(1995).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스포츠의 의미 탐색. 체육연구소논집, 16(2),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최의창(2005a). 학교 체육의 새로운 방향: 최근 동향과 체육교육과정 개선에의 시사점.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반성과 발전 방안 탐색. **2005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최의창(2005b). 가지 않는 길: 국민체육진흥과 전문체육인의 역할 재음미. 제43회 체육주간기념 제24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5-25.

Ainworth, B. (2005). Movement, mobility, and public health. *Quest*, 57(1), 12-23.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London: Cassell.

Corbin, C. (2002a). Physical education as an agent of change, *Quest*, 54(3), 182-195.

Corbin, C. (2002b). Physical activity for everyone: what every physical educator should know about promoting lifelong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1, 128-144.

Ennis, C. (1996). Students' experience in sport-based physical education:[more than] apologies are necessary. *Quest*, 48, 453-456.

Ennis, C. (2005, August). *Examining curricular coherence in children's physical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KASP Seminar. Chuncheon, Korea.

Krechmar, S. (2000). Moving and being moved: implications for practice. *Quest*, 52, 260-272.

Laker, A. (2003). Sport in culture. In A. Laker. *the future of physical education*. George Sage.

Penny, D. (1998). Positioning and defining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health in the curriculum.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42(2), 117-126.

Sidentop, D. (1994). *Sport education: quality PE through positive sport experience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논문 접수 : 2007년 4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7년 5월 25일

ABSTRACT

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Meanings and Orientations of Physical Activity as the Essence and Tool of Physical Education Content

Jeong-Ae You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Since the first revision of nation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middle and high school, sport has been used an essence and tool of physical education content. Recently, even if sport has many educational values, sports are being criticised as the educational essence and tool, because the essence of sport has dramatically changed. That is, the realities of current sport have characterized as quantification, entertainment, and externalism. The changing realities of sport have resulted in perceiving as a skill-based subject, using as a tool of getting rid of stress, and loading over-emphasized health and fitness promo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meanings and orientations of physical activity as the essence and tool of physical education content. The educational meaning of physical activity is considered 'life skill' that promote a healthy and active lifestyle. In addition, five educational orientations such as activeness, coherence, feasibility, integration, and inclusiveness are indicated. Finally, some directions are suggested to promote the educational meanings and orientations of physical activity, unlike sport has been resulted in educational limitations mentioned in this paper.

Key Words : sport, physic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